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0년도 제34호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최속현 절규에도...
7명 중 1명 맞고 있다**

2020년 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당국 대응책 체감 못해”
42%



**코로나가 만든
체육계 기현상**

각종 선수권 대회 취소로
인해 체육특기생 대입
일반전형에 몰려



**체육계 혁신,
대한체육회-KOC
분리로 가능할까**

이번 국감에서 KOC 분리,
국가균형발전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실무적인 심의는 막바지,
올해 안 이룬 시일에 결정





[단독]최속현 절규에도... 7명 중 1명 여전히 맞고 있다

최속현 선수 사망 이후에도 실업팀 소속 선수 7명 중 1명이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야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스포츠계 폭력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선수들의 고통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해에 대한 엄벌 못지않게 승자독식 스포츠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2020년 실업팀 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실업팀 소속 선수 7명 중 1명(13.9%)이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트라이애슬론 선수였던 최 선수가 팀 내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자 체육계 폭력을 끊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지만,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여전히 여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최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3일부터 한 달간 대한체육회 등록 실업팀 선수 전체(9409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3007명 응답).

전체 응답자의 13.9%는 최근 3년간 '직접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폭력피해자의 72.7%는 언어폭력, 8.2%는 언어폭력을 동반한 신체적 폭력에 노출됐다. 여성 선수가 직접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7.3%로 남성(10.6%)보다 더 높았다. 가해자의 71.5%는 지도자(감독 코치)였고, 특히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43.4%로 가장 많았다.

권력형 성폭력도 부리 뽑히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3.1%였다. 피해자의 58.1%가 성희롱을, 5.1%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응답자의 22%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의 38.7%가 '한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고, 65.6%가 '스승과 선수의 관계에서 적극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성폭력 문제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답변 비율(46.4%)이 남성(33.3%)에 비해 높았다.

체육계의 잇단 고발에 폭력 근절 방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업팀 선수들의 체감도는 낮았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인권침해가 과거보다 줄지 않았다' '운동선수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답변은 19.2%에 그친 반면, 부정적 답변은 42.1%에 달했다.

전 의원은 "정부와 체육계가 선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에 대한 엄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승리지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가 만든 체육계 기현상 체육특기생 대입 일반전형에 몰린다

"축구선수로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대학 가려고 이제 학원에서 멀리뛰기 연습해요."

코로나19 여파로 전국체전을 포함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대부분이 취소돼 고등학생 체육특기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진학을 위해 대회 수상 이력이 필요하지만, 특기자 전형을 노릴만한 수상대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8월까지 올해 고등부 종목별 대회를 한 번도 열지 못한 종목은 농구, 수영, 체조, 승마 등 22개 종목이다. 대전의 고등학교가 강세를 보이는 카누와 펜싱, 탁구 등 종목에선 일부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대회가 축소됐고 탁구는 제53회 문화체육장관기와 제66회 전국남녀탁구선수권 대회가 연달아 취소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체육특기생들이 대입을 위해 눈을 돌려 자신의 종목을 포기하고 일반전형을 준비하는 수가 크게 늘었다.

대전체육고 이종원 부장은 "대전체고는 그나마 1~2학년 때 좋은 성적을 낸 학생이 많아 일반전형으로 돌려 준비하는 선수가 크게 늘진 않았지만, 올 시즌 대회에서 입상을 노려 진학과 입단을 꿈꿔왔던 다른 학교 학생 중에선 선수를 포기하고 대입 일반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심하게 증가한 거로 알고 있다"고 했다. 채현진 맥스체대입시학원장도 "정확한 등록 학생 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특정 종목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특기생 고등학생들의 일반전형 준비를 위해 학원에 등록한 수는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특정 종목에선 담당 고교 3학년이 아닌 2학년 선수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다. 종목 특성상 연초에 진학과 실업팀 입단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시기 전국체전까지가 진로를 가르는 주요 시점이기 때문이다. 고2 체육특기생의 한 학부모는 "고교 1학년 말부터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해 기대감이 있었지만, 올해는 점수 딸 방법이 없어 아이와 진로 자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선 일부 학교의 선전이 이어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히나 매년 줄어드는 지역 체육특기생을 위한 지역대학에 혜택을 주는 등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운동 메카니즘이 비슷한 종목으로 전향하는 등 방법이 가능하지만, 지역에선 다른 지역 전학이라는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운동선수를 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김석중 장학관은 "이전부터 계속되던 체육특기생 감소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 지역에선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최소한 지역 대학에서 엘리트 운동선수의 입학을 꺼리는 분위기가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사람들죄를밝혀줘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머니투데이
홍세미 기자 2020.10.04



체육계 혁신, 대한체육회-KOC 분리로 가능할까

2019년 1월 초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사건과 고 최숙현 선수 신고 및 사망 사건이 불거진 이후 문화체육부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를 제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면서 문체부와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체부가 KOC 분리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체부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선수인권 보호와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엔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기 7차 권고안을 통해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를 권고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스포츠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및 비위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면서도 스포츠 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법으로 KOC 분리를 내세우는 데 대해 우려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문체부에서는 지방 문화기반시설 운영 역량 강화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보면 2019년 기준 문화시설 소재지는 수도권에 36.8%가 있다. 인구 대비 문화 시설은 지방이 많지만 1개관당 이용자 수, 직원수, 프로그램 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크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1개관당 평균 이용자가 수도권은 약 32만 명인데, 지방은 약 19만 명이다. 지방의 문화기반시설 운영역량을 강화 문화기반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관련 민간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 보조금 반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이 교부된 후 보조사업자 일부를 집행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기 집행한 보조금의 반환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마이스산업의 피해에 대한 추가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가 큰 복합 전시 산업을 의미하는 MICE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크다. 2020년 1월 6월까지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었던 국제회의 총 82건 중에서 9건(10.9%)은 취소됐고 69건(84.1%)은 연기됐다. 연기문화체육관광부는 매출액 기준으로 국제회의업의 상반기 피해규모를 약 562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후속과제도 쟁점이다. 제20대 국회에서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개정돼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보험에 속한 문화예술인에 대해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바탕으로 일을 하지만 예술활동 증명을 하지 못한 예술인이 생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제3자와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자신이 직접 노무 제공을 하는 경우, 공동창작 내지 팀이 도급사업을 받아 용역을 수행할 때 그 대표자를 사업주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해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올해 안 이른 시일에 결정”

문화체육관광부심의 중인 대한체육회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안이 연내 승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안 통과를 묻는 질문에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인 심의는 막바지”라면서 “정관 변경에 따른 공정성 시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상실에 따른 한국의 국제 스포츠무대에서의 위상 추락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체육회 정관은 제 29조 '회장 선출' 조항이다. 조항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장에 당선된 이기흥 회장의 임기 만료 시점은 2021년 2월로 90일 전 사임 조건을 적용하면 최대 올해 11월 말까지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문제는 이기흥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는 점이다. 이기흥 회장은 지난해 6월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수장 자격으로 IOC 신규위원에 선출됐다. 때문에 NOC 대표 자격을 잃으면 IOC 위원 자격도 자연스럽게 박탈된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외교와 체육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회장 선출 조건을 임기 만료 90일 전 회장직 '사임'에서 '직무 정지'로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체육시민단체와 일부 체육계 인사들은 선거의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관 변경이 이기흥 회장 연임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체육회는 2월11일 제31차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을 시도했지만 일부 이사의 만류로 보류했다. 주무관청인 문체부는 현행 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를 요구한 상황이다.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이나 2월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체육계는 문체부가 정관 승인 또는 거부 의사를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정관 변경안은 6개월여 동안 문체부의 심의를 받고 있다.

문체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다. 25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정관 개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다. 이번 선거만큼은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곳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승인이 지연되면서 불통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논란으로 튀고 있다.

분리를 찬성하는 쪽은 대한체육회와 KOC를 분리하면 이기흥 회장은 국제대회 등 엘리트 체육을 전담하는 KOC 회장에 전념해 IOC 위원직을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수호할 수 있고 생활 체육 중심의 KSOC 회장은 새로 선출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반대하는 쪽은 KOC와 대한체육회가 분리될 경우 체육계의 극단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와 2032년 남북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 악영향 등 체육행정 공백과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위상 추락을 걱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전문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윤희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게 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 KOC는 국제대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전문성 확보, 독립성,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석한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 역시 “체육계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분리 문제는 방향성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한체육회 조직 상황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주의 스포츠 관련 기사]

‘무관중 시대‘ 더 치열한 유튜브 스포츠 열전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64281.html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스포츠인권교육 실시

<http://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35>

기괴한 성범죄에도...가해자' 스포츠인생' 걱정만 재판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447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초등학생 강제추행 코치, 성실해서 봐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8412

프로스포츠 은퇴 선수 대상 온라인 교육 수강생 모집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9117600007?input=1195m>

청소년 도박중독 4년새 14배로 폭증...스포츠, 게임도박 압도적

<https://www.sedaily.com/NewsView/1Z80N4MYUQ>

올해의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누가 되나?

<http://mksports.co.kr/view/2020/1003360/>

스포츠산업, 코로나19에 매출 40% 급감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009282028003&sec_id=530101&pt=nv

‘가성비, 생활스포츠’ 대형마트 스포츠 매장이 변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92716524034098>

전국시도체육회장 간담회...대한체육회-NOC분리 반대 목소리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017>

국민체육진흥공단, 코로나19 위기 스포츠산업 혁신계획 발표

<http://m.mooye.net/a.html?uid=17101>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 회장선거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9719>

스포츠윤리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 협약 맺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29500137&wlog_tag3=naver

코로나로 멈춘 올림픽, 고통받는 비인기종목 태극전사들...훈련수당은?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092510528099547>

스포츠폭력 근절 캠페인

프로젝트 움직임 Project Umjik

고 최속현 선수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요?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고 문체부는 특별조사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많은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역시 이번에도 달라진 건 없네'라는 교훈을 얻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에서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프로젝트 '움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방법

1. 자신이 평소에 하는 운동이나 표현하고 싶은 동작을 촬영합니다. 사진 혹은 글도 대체 가능합니다. 자신을 찍어 올리기 부담스러우시면 몇 글자 쓰기 또는 자유로운 방법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 폭력을 없애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2. 위의 의미와 방법을 복사해서 자신의 표현(동작, 글, 그림 등)을 SNS에 올립니다.
3. 다음 번 주자를 세 명 지목합니다.
4. 지목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취지를 설명드리고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폭력이 사라진 체육계를 상상합니다. 존중과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스포츠계를 상상합니다. 지금 함께 움직여 주세요.

#스포츠인권캠페인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 및

지원활동 안내



체육시민연대는

‘철인3종선수 사망사건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스포츠인권팀’ 소속

10여분의 인권변호사분들과 함께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 인권침해 제보가 들어오면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 아래의 이메일로 제보 바랍니다.

공동대책위원회

✉ forsportsreform@gmail.com

체육시민연대

✉ sports-cm@daum.net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만인이 즐기는 스포츠 세상, 체육시민연대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연대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체육시민연대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체육시민연대 활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됩니다.**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 바랍니다.**

국민은행 086601-04-095940
예금주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www.sportscm.org/index.php?module=Inquiry&action=SiteInquiry&sMode=INSERT_FORM&iInquiryNo=2